

**대면수업과 관련한  
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증상 발현 시  
행동 수칙(학생용)**

**2022.03**

**서강대학교 일상회복지원단**

## ■ 본인이 확진된 경우

-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(방역 당국의 격리 기준과 동일)를 해야 함.
- 소속 대학(원) 행정팀과 대면수업 담당 교수에게 확진된 사실을 통지해야 함.  
기숙사 학생의 경우 사감에게도 확진된 사실을 통지해야 함.
- 소속 대학 행정팀에 증빙서류와 함께 유고결석을 신청해야 함.

## ■ 대면수업 중 의심증상 발현 시

- 소속 대학(원) 행정팀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수령하여 검사한 후 검사 결과를 행정팀과 대면수업 담당 교수에게 즉시 통지해야 함.
-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음.
-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인 경우(기숙사 학생은 사감에 통지) 즉시 PCR검사를 받아야 하며, 음성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, 양성인 경우의 행동수칙은 “본인이 확진된 경우”와 동일함.

## ■ 본인이 수강하고 있는 대면수업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음을 인지한 경우

- 참여수업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을 사이버캠퍼스, 서강톡톡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인지한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함(권고).
-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함.
- 신속항원검사 결과에 따른 행동수칙은 위 “대면수업 중 의심증상 발현 시”와 동일함.

학생은 사이버캠퍼스 공지사항(사이버캠퍼스 어플>Hello LMS) 활용 포함), 서강톡톡, 문자메시지 등을 수시로 확인하며,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수업의 코로나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함.